금주의 법구–〈원각경〉
헛것인 줄 알았으면 곧 떠나라.
헛것을 떠나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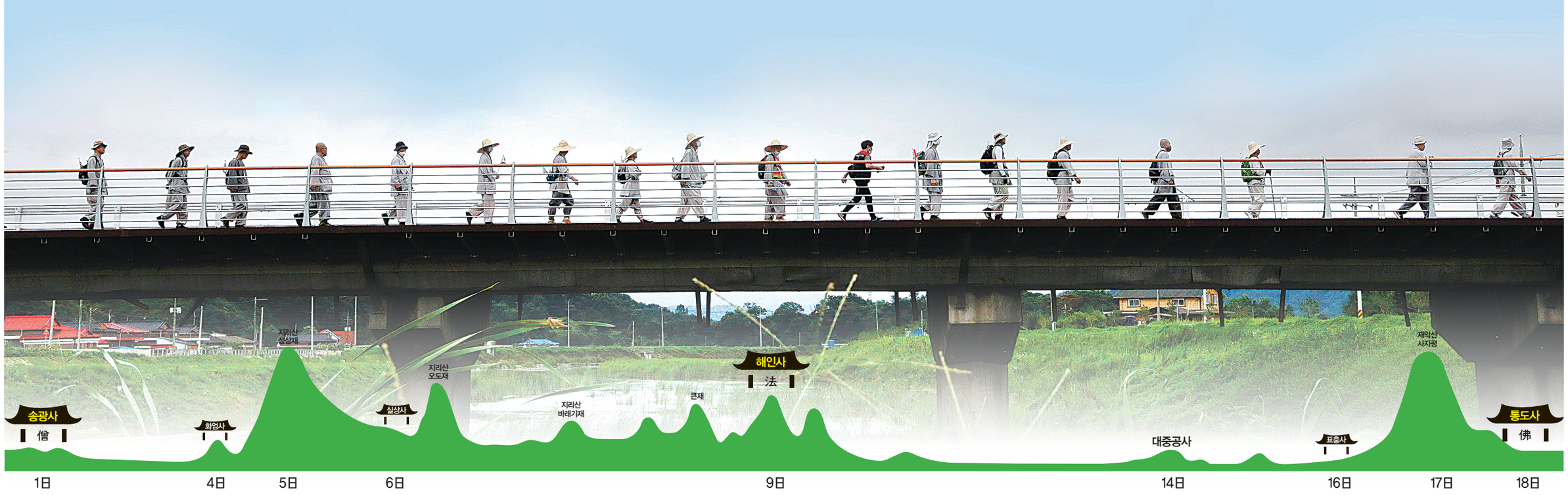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12일)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三寶로드' 천리길 결사 대장정

상월결사, 9월 30일~10월 18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여정,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회주 자승, 조계종 前 총무원장)는 7월 14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10월 1일 순천 송광사에서의 입재를 시작으로 10월 18일 양산 통도사에서 회향한다고 밝혔다.

주요 순례 일정은 9월 30일 송광사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1일 송광사 입재식, 2일 송광사 일대, 3일 구례 화엄사와 사성암, 4일 천은사와 시암재, 5일 남원 성삼재, 6일 실상사, 오도재, 7일 함안 지안재, 8일 함안 바래기재, 가조 살피재, 9일 해인사, 10일과 11일 고령, 12일 창녕, 13일 부곡, 14일 부곡 대중공사, 15일 밀양, 16일 표충사, 17일 사자평, 울산, 18일 양산 통도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부터 전라북도, 경상남도로 이어지는 423Km의 천리길에는 해발 1079m의 지리산 성삼재를 비롯해 958m의 지리산 시암재, 989m의 재악산 사자평 등 10여 고갯길이 순례단을 기다리고 있다.

순례단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총도감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과 스님 50여 명, 재가자 30여 명 등으로 구성되고, 지원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다.

순례는 새벽 3시 기상과 함께 3시 40분 새벽예불과 몸풀기 체조로 시작해 묵언 행선으로 이어진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길 위에서 해결하며, 자비순례와 마찬가지로 1인 1텐트를 기반으로 숙영한다.

천년고찰서 대중 함께 신심 증장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자비순례와 달리 천년고찰들을 순례 과정에서 참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 · 법 · 승 삼보의 의미를 간직한 삼보사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있는 곳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국난을 극복하고, 삼보신앙 문화를 되살려 불교중흥으로 이끌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사부대중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포교와 전법, 수행과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순례단은 사찰 측 행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9월 30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도 했다.

순례일정 중 10월 3일에는 화엄십찰 하나인 화엄사서 개산대재를 겸해 화엄사 대중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10월 9일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보살계 수계산림과 결사대중의 참배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6일 진행되는 표충사 사명대사 다례재는 사명대사 성상이 있는 동국대와 열반지인 해인사 홍제암, 선양 중심지인 표충사를 잇는 호국정신 함양의미로 진행된다. 유일하게 2박을 머무는 부곡에서는 14일 '포교와 전법'을 주제로 한 대중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부대중 함께 하는 순례 주제
9월 30일부터 19일간 423Km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만행
삼보사찰 비롯해 사찰9곳 참배
삼보신앙, 순례문화 조성 목적
'포교와 전법' 대중공사도 진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느끼는 사부대중의 바람도 있고, 중흥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였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시작해, 태화산 예비순례와 국토를 순례하는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진행했다"며 "승보에서 법보, 불보 종찰, 그 사이에 화엄십찰인 화엄사, 구산선문 중 하나인 실상사, 호국사찰인 표충사를 거치며 순례를 하는 것은 한국불교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중흥 원력을 잇는 순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합 · 국난극복 메시지도 전해

이어 호산 스님은 "불법승 삼보사찰은 호남과 영남에 걸쳐있다. 지역화합과 소통, 천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고찰이 있는데, 불자만의 삼보사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를 인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친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리는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기련 삼보사찰 천리순례 지원단장은 "삼보신앙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다. 순례 이후 산티아고순례길, 시코쿠순례길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편으로 순례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참가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자비순례 당시 내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통한 걷기, 발열체크 등 엄격한 방역 수칙도 그대로 이어진다. 또 자비순례 당시 9800명에 달했던 1일 참가 및 부분참가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요구될 방침이다.

지객 원명 스님은 "이번 천리순례의 총거리는 거리는 자비순례에 비해 짧지만 고갯길이 9곳에 달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리순례 후 사회회향으로 전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우리 사회를 위한 또 다른 회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월선원 자비순례 후 결사 대중들은 후원금을 모아 우리 사회에 총 1억 8500여만 원을 전달했다. 구급차 교체와 소외계층 지원, 국가대표 선수 지원, 베트남 화장실 건립 등으로 이어졌다.

호산 스님은 "정말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내주셨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자비순례 당시 재가자로 이뤄진 7조 조장을 맡았던 정충래 동국대 이사도 "스님과 재가대중이 함께하는 공동체 참여 의식이라고 본다. 이번 천리순례에서도 재가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련 지원단장은 "사부대중이 함께해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다는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한걸음씩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회향 후 11월 11일에는 삼보사찰 회향 및 상월결사 2주년을 기리는 기념법회도 진행되며, 순례에 앞선 9월 초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국대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의 20~25km를 걷는 백담사 예비순례가 진행된다.

호산 스님은 끝으로 "불교를 되살리는 일이자,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사에 많은 이들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우리, 세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전법포교, 불교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이
길 위의 야단법석으로 펼쳐집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모십니다.

순례일정 | 2021년 9월 30일 ~ 10월 18일
순 례 길 | 송광사 → 해인사 → 통도사
접수마감 | 2021년 8월 15일
문 의 | 지객 원명스님 010-5416-0616



불자들의 세가지 보물 '삼보(三寶)'
•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16국사의 숨결을
•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진리의 깨우침을
•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내 안의 붓다를 만나는 여정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의 시작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발원합니다